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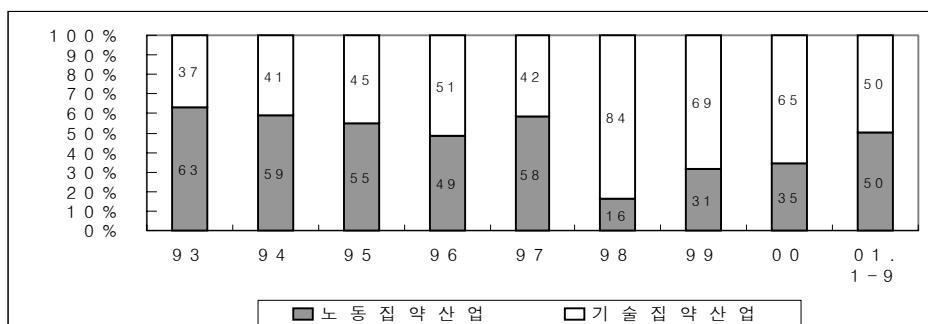
우리기업의 對중국 투자 전략 수정 불가피

I.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실태

□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

-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됨.
 - 2001년 9월말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총투자 누계기준)는 49.2억 달러임.
 - ⇒ 이중 82.7%인 40.7억 달러가 제조업 분야 투자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12.8%인 6.3억 달러에 불과함.
-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의류, 완구, 신발 등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진출함.
 -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의 저임 노동력 활용 및 수출 위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시행에 부합함.
 - ⇒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으로 對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한 반면, 대기업 중심으로 기계·전자, 화학 등의 투자가 늘면서 기술집약적 업종의 투자비중이 50%를 상회함.

우리나라의 노동/기술집약 업종별 대중국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의거, 작성

□ 환발해만 지역으로 투자 편중

- 對중국 제조업 투자 가운데 61.8%가 환발해만 지역에 집중 됨.

우리 기업 대중국 제조업 투자 현황 (2001. 9)

(단위: 건, 억 달러)

	환발해만	장강 삼각주	기타 지역	계
건수	3,376	548	928	4,852
금액	25.1	9.2	6.3	40.7
비중	61.8%	22.7%	15.5%	

- 주) · 環渤海灣 지역은 北京, 天津, 河北, 山東, 遼寧(山西省 제외)
 · 長江三角洲 지역은 上海, 江蘇, 浙江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의거, 작성

□ 최근 對중국 투자 감소 추세

- 기업 내부 요인

- IMF 관리체제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 부족
-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부족

- 기업 외부요인

- 중국의 노동집약산업 분야의 공급 과잉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노동집약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중국 첨단 기술 산업 위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
 ⇒ 첨단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시장과 기술의 교환’ 전략 구사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중국 투자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전체			중국			
	건수	금액	평균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1992	497	1,219.4	2.5	170	34.2	141.1	11.6
1993	682	1,261.6	1.8	378	55.4	264.0	20.9
1994	1,485	2,299.6	1.5	841	56.6	632.1	27.5
1995	1,309	3,071.8	2.3	740	56.5	823.5	26.8
1996	1,451	4,248.5	2.9	729	50.2	835.7	19.7
1997	1,299	3,229.6	2.5	623	47.9	633.2	19.6
1998	585	3,895.1	6.7	242	41.4	630.8	16.2
1999	1,029	2,549.7	2.5	431	41.9	308.1	12.1
2000	1,865	3,677.9	2.0	692	37.1	306.7	8.3
2001. 9	1,303	1,003.4	0.8	622	47.8	277.8	27.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현지화 정도 매우 낮음

- 선진국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은 원자재, 부품의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음
- 관리직의 대부분을 파견 근로자가 담당함.
 ⇒ 중국 근로자에 대한 승진 기회 부족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임금 지급으로 현지인과의 과다한 임금 격차 발생으로 갈등 야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중국 인재 흡인력 비교

국가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재흡인력	강함	매우 강함	비교적 강함	비교적 강함	비교적 약함

자료: 북경사무소

□ 소수기업만 이익 실현

- 제조업 부분에 종사한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평균 수익률은 -0.6%로 매우 저조함.

⇒ 외국인 투자기업 적자기업 비중이 전체 기업의 60% 수준

□ 수출 비중 높음

- 생산제품의 수출비중이 82.5%로 매우 높음.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투자가 높은데 기인함.
- 유럽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20% 대 수준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함.

국가별 대중국 투자 특징 비교

국가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제조업 판매 수익률	9.4%	8.0%	6.2%	3.0%	-0.6%
수출 비율	8.2%	26.2%	21.4%	59.8%	82.5%

자료: 북경사무소

2. 미·일 기업의 대중국 투자 실태

□ 미국의 對중국 투자는 적극적인 반면 일본은 소극적

-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국 투자는 감소해 왔음. 반면 미국계 기업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동안 일본 기업은 중국 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WTO 가입을 계기로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중국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 반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을 감지하고 대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함.
- 특히 WTO 가입을 위한 개별 국가와의 쌍무 협상을 시작한 1998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보다 활발하였음.

연도별 미·일 기업의 대중국 실제 투자액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본	13.2	20.7	31.0	36.7	43.2	34.0	29.7	29.1
비중	4.8%	6.2%	8.3%	8.9%	9.6%	7.5%	7.4%	7.2%
미국	20.6	24.9	30.8	34.4	32.3	38.9	42.1	43.8
비중	7.5%	7.4%	8.2%	8.3%	7.2%	8.6%	10.4%	10.7%

주)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 실제 유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미국 기업은 수익 창출력이 높은데 반해 일본 기업은 낮음

- 미국 기업은 원·부자재 등의 현지 조달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일본 기업은 수입에 의존함.

대중국 진출 미·일 기업의 연도별 수익률 비교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7.4%	21.3%	23.0%	6.8%	13.0%
일본	1.8%	1.1%	0.9%	1.5%	▲0.0%

자료 : 金堅敏, 對中投資収益性を高めるための競争力強化策, 國際金融, 2001.10.1

일본 기업의 원·부자재 현지 조달 비율

	30% 이하	30~50%	50~70%	70% 이상
1996	46.6	9.1	11.6	32.7
1999	39.7	12.9	11.1	36.3

자료 : 金堅敏, 對中投資収益性を高めるための競争力強化策, 國際金融, 2001.10.1

미국 기업은 시장참여 제한에, 일본 기업은 대금회수 등에 불만 높아

- o 미국 기업은 높은 관세율, 내·외국인 차별대우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 o 일본 기업은 외국인 투자 제도·정책 등의 일관성 결여, 대금회수 부진, 근로자 해고 경직성 등에 불만을 나타냄.

3. 향후 우리 기업 대중국 투자 전략 방향

장기적인 투자 전략 필요

- o 단기적인 이익 추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중국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인 현지화 작업 필요

- o 현지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채용 및 승진기회 보장 등으로 기업 현지화 노력이 필요함.

기술 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 o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 노동집약 산업의 대중 투자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금융, 유통, 서비스업 투자 확대

- 금융, 유통, 서비스업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진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활동 지원으로 우리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 인수·합병(M&A) 형태 투자 검토

-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의 하나로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수·합병 방식의 투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 인수·합병 투자 진출시 중국내 관련 법률 및 소유권 문제, 노사 관계 등 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
 - ⇒ 시장과 유통망을 갖춘 우량 국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개도국신용평가실 차장 김주영 ☎ 3779-6647, jykim@koreaexim.go.kr
대리 전선준 ☎ 3779-6650, jsjun@koreaexim.go.kr